

# 방산업체 대표, 청와대 오찬

— 가동률 향상 대책 마련 및 해외도입무기 국산화개발 구매 건의



金泳三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50주년을 맞는 해로 평화이상 중요한 것이 없고, 세계 분위기가 냉전 종식으로 흐르지만 우리나라 만큼은 예외에 해당되므로 힘을 길러야 국제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柳繼佑 방위산업진흥회장은 “남·북한간 긴장완화 속에서도 핵을 무기로 하는 북한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안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방산업계도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자주국방 건설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국** 내 방산업체 대표들은 金泳三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방산부문 가동률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를 설명하고 국산 무기 사용을 확대해 발주물량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柳繼佑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한 38명의 방산업체 대표와, 李養鎬 국방부장관 朴在潤 통상산업부장관 등이 배석한 이번 오찬에서 金泳三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임기의 절반되는 시점에서 방산업체 대표들을 만나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하고, 방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이 애국자라는 자부심과 사명감 속에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李大遠 삼성항공 사장은 '99년에 생산 종료될 예정인 KFP사업과, 고등훈련기 및 경공격기 개발사업 간에 4년정도의 생산공백이 있어 확보된 시설과 기술 및 인력의 상호연결에 곤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유희화 방지와 항공산업 육성차원

에서 후속 발주 물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石鎭哲 대우중공업 사장은 신규무기체계 채택시 해외도입보다 국내기술 개발을 우선해 줄 것과 국방 중·장기무기체계 획득계획 수립단계부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金尙憲 풍산 사장은 정부의 조달물량 감소로 업계 가동률이 손익분기점에도 못미치는 현실 속에서 생산성 향상, 설비 및 인력 감축, 해외 수출 확대 등 업체 자체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하고, 유휴장비 유지를 위해 정부가 방산업체 가동률 향상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李原昇 한국광학 사장은 중소기업을 대표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난에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며 방산육성기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 조성해 중소기업에도 충분한 자금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제4회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 개최

## - 21세기 태평양시대에 대비한 국가해양력의 역할과 중요성 강조

**해** 군과 세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4회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이 『세계화 시대의 한국 해양력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8월 3·4일 이틀간 세종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해군 창설 50주년을 기념하고 21세기 태평양시대에 대비한 국가해양력의 역할과 중요성을 홍보하며, 향후 한국해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측에서 尹正錫 교수(중앙대), 李瑞垣 박사(외교안보연구원), 李春根 박사(세종연구소), 李弘杓 박사(세종연구소), 姜永五 예비역 제독 등이 주제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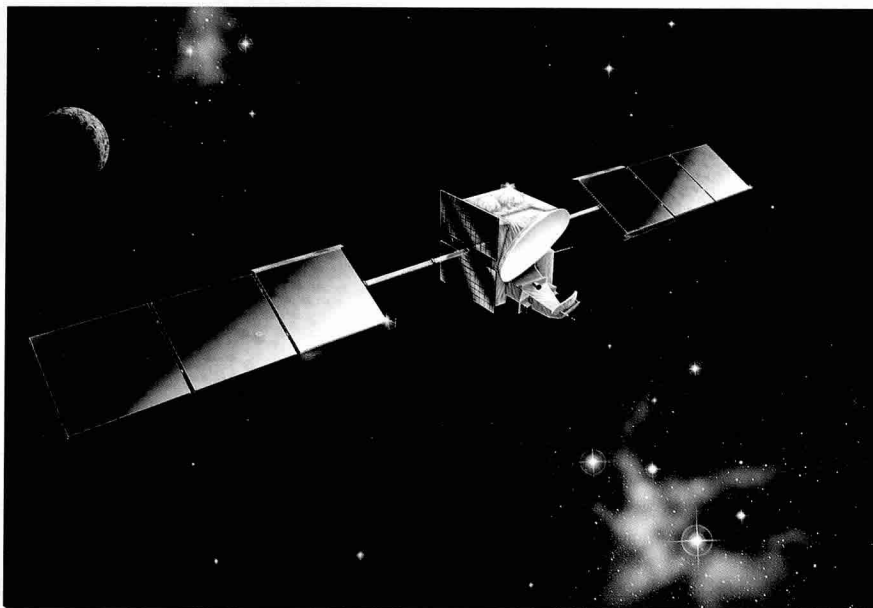
외국측 인사로는 Mark J. Valencia(美 하와이대 교수), Stanley B. Weeks(美 SAIC 수석연구원), Charles A. Meconis(美 Seattle대 부교수), Alexei V. Zagorsky(러시아 IMEMO 연구위원), Walter Samuel Grono Bateman(호주 Wollongong대 해양정책연구소장), Naotoshi Sakonjo(일본 RIPS연구위원)등 4개국에서 6명이 주제 발표했다.

이외에도 8명의 토론참가자 및 학계, 언론계, 현역 등 10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은 美해군



7함대 사령관 Archie R. Clemins 해군 중장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심포지엄 첫째날인 3일에는 세계화시대의 해양력 및 해양력과 국가발전, 둘째날에는, 21세기 한반도 주변국의 해군력 발전방향과 한국 해군력의 발전방향 등 4개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무궁화 위성이 최종 정지궤도 진입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통신·방송위성을 보유하게 되어 본격적인 위성방송시대를 개막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계 무역 12위의 경제력에도 우주개발에서는 뒤쳐져 있던 우리도 무궁화위성발사를 통해 우주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군, KTX-1 3호기 출고식 가져...

— 대우중공업, 99년부터 총 1백대의 초등훈련기 납품

**국** 방부는 지난 7월 28일 KTX-1 3호기 출고식을 창원 대우중공업에서 가졌다. 대우중공업이 주관업체인 KTX-1 사업은 국방부, 공군 및 항공업계 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출고식을 갖고 정부의 구매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대량생산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공군의 초·중등 훈련기로 운용할 KTX-1 훈련기는 9백50마력의 엔진에 시속 4백75km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최초의 국내 개발 항공기이다.

88년도부터 國科研 주도로 대우중공업 등 국내 8개업체가 참여해 개발에 착수한 KTX-1은 지난 91, 93년에 각각 1, 2호기를 출고한 바 있다.

99년부터 총 1백대의 초등훈련기를 공군에 납품하기로 한 대우중공업은 사천에 대규모의 조립공장을 건설해 초등훈련기 조립 및 항공기 개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의 날 행사에서 KTX-1 항공기의 명명식을 가질 계획이다.



# 중국, 파키스탄·이란 등에 미사일 제공

— M-11 완제품 및 핵심 부품으로 주변 안보에 위협

**美** 중앙정보국(CIA)은 중국이 파키스탄에 중거리탄도 미사일 완제품을 제공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뉴욕타임스紙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보관리들이 위성사진이나 교신내용, 정보보고 등을 통해 92년 이후 파키스탄의 사르그다 공군기지에 중국제 M-11 미사일이 30기 이상 있음이 확실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 관리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미사일 확산저지보다 미·중, 미·파키스탄 관계를 중요시 여겨 이런 증거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파키스탄이 오랫동안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M-11 미사일을 구하려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완제품이 아닌 부품만 제공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지난해부터 수십에서 수백개의 미사일 유도장치와 컴퓨터화된 기계공구를 이란에 제공해 왔으며 이 부품들은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구입한 스커드 미사일의 정확도 향상과 자체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 아시아의 군사력 현황

**美** 회계감사원은 '95. 6월 의회에 제출한 “대평양 지역에서의 중국군 현대화 영향 (Impact of China’s Military Modernizati-

on in the Pacific Region)”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중국의 군사력을 인접국가들과 비교하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국가명	구분	병력	전차		전투기		함정		잠수함	
중국	중	3,030,000	9,400	(500)	5,224	(124)	57	(40)	53	(7)
파키스탄	파 키 스 탄	577,000	1,890	(40)	336	(160)	11	(8)	6	(6)
인도	인 도	1,100,000	3,500	(2,700)	700	(374)	21	(14)	18	(12)
태국	태 국	295,000	663	(313)	74	(18)	14	(6)	0	(0)
싱가포르	싱 가 포 르	55,500	350	(0)	143	(6)	0	(0)	0	(0)
북한	북 한	1,127,000	4,200	(2,225)	730	(136)	3	(0)	23	(0)
한국	한 국	633,000	1,860	(450)	334	(48)	17	(9)	3	(3)
일본	일 본	237,700	1,200	(929)	324	(231)	62	(40)	17	(17)
대만	대 만	442,000	1,400	(0)	460	(10)	38	(11)	4	(2)
베트남	베 트 남	857,000	1,900	(400)	240	(0)	7	(5)	0	(0)
말레이시아	말 레 이 시 아	114,500	26	(26)	50	(0)	2	(0)	0	(0)
필리핀	필 리 핀	106,500	41	(0)	7	(0)	1	(0)	0	(0)
인도네시아	인 도 네 시 아	270,900	235	(110)	54	(12)	17	(4)	2	(2)

\* 대만은 F-16기 150대, Mirage 60대, 기타 130대의 각종 전투기를 현재 주문중에 있으며, 각종 함정을 건조중에 있음.

\* 말레이시아는 F-18기 8대를 구매추진중에 있으며, MiG-29기 18대를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자료에서 병력은 현역, 전차는 주력전차와 경전차, 전투기는 공대공 및 지상공격 항공기, 전함은 순양함, 구축함, 초계함, 잠수함은 모든 종류를 포함한 것이며, 괄호안은 첨단장비로서 전차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같이 최소한 1950년대 중반이후의 설계에 의하여 생산된 장비임.